

전문대학 간호학과 재입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 접근

한미현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A Qualitative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Re-Enrolled in A College-Grounded Theory Approach

Mi-Hyun Han
Division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근거이론 접근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소재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3명이다.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코딩과 범주화를 한 다음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델을 적용하였다. 중심현상은 간호학 학습의 어려움이었다. 인과적 조건은 더 나은 직업, 간호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도전이었고, 재입학 상황에 해당하는 맥락적 조건은 생소한 학문과 나이 차이, 경제적 부담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뚜렷한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어려움 해결전략, 긍정적 학습전략과 부정적 학습전략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높은 전공 만족도, 성장,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는 전공 학습 적응의 패러다임 모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입학생들의 전공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 초기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that re-enrolled in a nursing college. The subjects were 13 fourth-year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020 to May 2022 by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and Corbin's paradigm model was applied to coded and categorized data. The central phenomenon wa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learning nursing'. Causal conditions were 'to get a better job' and 'to fulfill one's dream to become a nurse'. Intervention conditions were 'clear sense of purpos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support systems'. Action/reaction strategies were 'various ways of overcoming difficulties', 'positive learning strategy', and 'negative learning strategy'. Through these processes, students exhibit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as they matured and learned how to overcome difficulties. Appropriate support programs should be devised from early college years to encourage nurses to persevere.

Keywords : Students, Nursing, Learning,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Han(Hyejeon College)

email: hmi Hyun@hj.ac.kr

Received July 18,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August 26,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하였다[1]. 이것은 대학을 나와서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개인이라도 일생 동안 몇 번이든 재학습을 하여 자신의 직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전환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습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재입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4].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특히 대학 진학 적령 인구 감소함으로써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이 재입학하는 학습자들을 적극 유치 할 필요가 있다[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재입학 지원자와 입학자 수는 2016년 지원자 6,146명(입학자 1,395명), 2017년 7,412명(1,453명), 2018년 9,202명(1,537명), 2019년 8,392명(1,525명), 2021년 14,210명(1,7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 2022년 지원자 14,087명 중 입학자 1,770명으로 경쟁률은 8:1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학과이다. 간호학과는 매년 등록 인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재입학생 1,770명 가운데 433명(24.5%)이 간호학과에 입학하였다.

재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Jang[3]은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의 재입학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취업 상태에서 재입학하는 고연령자들은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입학을 하였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재입학하거나 구직상태에서 재입학한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입학한다고 하였다.

전문대학 재입학생의 특성 및 참여요인에 대해 연구한 Park[5]은 재입학 참여요인으로 직업전환 및 개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 삶의 활력과 자극, 사회적 관계 형성과 봉사, 주위 권유 등을 제시하였다.

Noh[7]는 4년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후 전문대학에 재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경험을 연구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Kim[8]은 재입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재입학 과정이 단순히 진로 결정의 실패나 진로 미결정으로 인한 대체적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입학 이후에도 의사결정과정은 계속되므로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대학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입학생의 학습 과정을 연구한 Choe[2]는 재입학생들이 '생애 전환이 되는 사건을 경험',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 '학습의 방해요인 발생', '깨달음과 학습의 의미 찾기'의 학습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Kim[9]은 재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정을 '재도전의 길 나서기', '어려움에 마주 서기', '어려움 헤치고 나아가기', '적응하기 및 체념'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Hong과 Kim[10]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한국 간호대학생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11편을 선정하여, 학습경험을 메타분석 하였는데,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일반학생과 재입학 학생을 구별하지는 않았다.

재입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이 다시 입학한 대학에서 어떻게 전공 학습을 이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재입학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학습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재입학 동기를 이해하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재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 재입학생의 학습경험은 어떠한가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학

습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재입학생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학업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한 학생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는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다. 4학년 재학생(157명) 중 입학 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29명이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필사본 작성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구분 표시로만 기록하며, 면담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면담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했어도 중간에 철회 의사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1차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질문주제를 범주화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E-mail로 제시하였다(Table 1).

면담 전에 제시한 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자기보고서를 기초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Table 1. Open-ended questions provided to students before interview.

- Major of previous college/university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admission
- College life especially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after re-admission
- Satisfaction with current major
- Factors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Covid-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전화로 면담을 하였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현장 노트를 기록하였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이후에 어떤 학습

경험을 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개인 면담은 1회 면담 시 50분 ~ 9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현장 노트와 필사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경험한 것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나 연구자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대상자에게 실시하지는 않았다. 총 면담 횟수는 17회였으며 최종면담을 마무리하고, 필사한 기록은 A4 용지 75장 분량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한 다음 이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 따라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자료의 중요한 정보들을 범주로 코딩하였고, 초점을 두는 하나의 중심현상을 확인하고 나서 중심현상 주위의 범주들을 만들었다.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분석 틀인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정리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자 준비과정으로 근거이론 방법 및 심층 면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학술대회와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하였고, 이전에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계획단계부터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도 근거이론 방법론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호학과에서 25년 이상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간호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사한 자료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해서 자신들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여성 10명, 남성 3명이었으며 입학 당시 연령은 23세부터 52세까지였다. 13명 중 10명이 재입학 직전에 취업한 상태이었거나 이전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중이었다. 이전 대학에서의 전공은 자연계열로는 물리치료가 있었다. 대부분은 인문계열이었으며 작곡,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자도 있었다. 참여자 정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Gen-der	Age	Previous college-university (major)	Status before readmission
1	F	52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credit bank (social welfare)	Nurse assistant
2	M	29	University (police and law)	Bodyguard
3	F	25	College (hospital administration)	Nurse assistant
4	F	29	University (french)	Looking for a job
5	F	23	College (trade distribution marketing)	Salesperson
6	F	25	College (trade distribution marketing)	Bank clerk
7	F	46	College (social welfare)	Office work at hospital
8	M	26	University-drop out (physiotherapy)	Military service
9	F	42	University (composition)	Piano tutor
10	M	28	College (health care management)	Military service
11	F	30	College (hotel & tourism)	Salesperson
12	F	28	College (communication design)	Designer
13	F	23	College (health care administration)	re-admission followed by graduation

3.2 간호학과 재입학생의 학습경험

개방코딩 결과 나타난 개념은 총 80개였으며, 하위범주 28개, 상위범주 15개로 범주화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이 겪는 중심현상은 '전공 학습의 어려움'이었고 이를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은 재도전이었다. 재도전의 이유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와 '간호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서 맥락적 조건은 '새로운 학습상황', '나이 차이',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계(정서적 지원/경제적 도움/주변의 인정)'이었다.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다양한 어려움 극복 방법(혼자 해결/ 축적된 경험 활용/옛날 친구와 상담/지지체계 활용)', '긍정적 학습전략', '부정적 학습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높은 전공 만족도', '성장',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Fig. 1).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학습경험에서 나타난 중심 현상은 '전공 학습의 어려움'이었다.

학생들은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야 했으며, 개념이나 원리 파악을 힘들어했다. 심지어 보건계열 전공자라고 해도 다루는 내용이 깊어져서 어렵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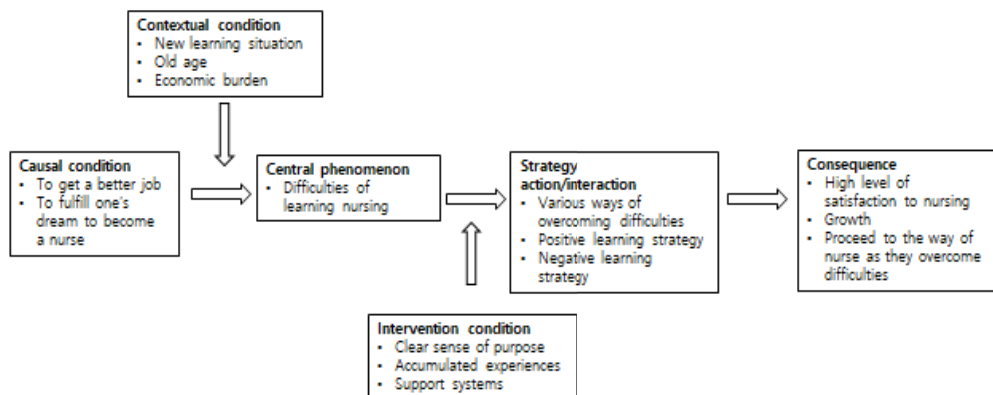


Fig. 1. A paradigm model showing learning experience of re-enrolled nursing students

이들은 임상 실습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고 좋아한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는데 한발 가까이 간다는 느낌을 갖고, 간호사가 되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임상 실습 과제인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어려워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입학생들은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겠다는 생각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공은 참 어렵고 지금도 좀 어렵다고 느껴요. 아니 무슨 질병이 이렇게 많은지... 수업 시간에 강의가 훌쩍 넘어가니까 핸드폰 한번 볼 때마다 한 단원을 놓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생리학, 병리학은 들어도 들어도 정말 모르겠어요. 보충학습을 해도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임상 실습은) 워낙 힘들 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안 힘들었습니다. 동적인 업무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실습이 좋았습니다.

3학년 때 임상 실습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갔어요. 특별하게 무엇을 찾아보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만 하다가 나갔어요. 간호 진단, 간호과정, 검사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선포들 저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점수로 보면 부족하지만 최선은 다해요. 가끔 자괴감이 드는 데 그건 성적 때문이에요. 면허만 따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아쉬웠어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들로 구성되는 원인을 의미한다.

재입학생들은 간호사 면허 취득과 취업에 대한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다른 전공을 이수한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직업적 보장을 위해서, 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간호사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입학을 결정하였다.

원하던 직업을 가졌지만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능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학과(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간호학과 갈 거라는 생각으로 D 대학 보건의료행정과에 입학하였고, 졸업하면서 바로 여기 간호학과에 들어왔어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습상황', '나이 차이',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선택한 재입학이 실현되어 기대감과 설렘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간호학이라는 새로운 학습상황을 만나고, 방대한 학습량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나이 차이로 인해 학우, 교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교과 이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재입학 후 등록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쓰는 용돈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1학년 생리학을 배울 때 이과인 현역 학우들과 수업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났어요.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왔고 졸업한 지 조금 되어 모든 게 다 처음 듣는 것 같았는데, 현역 학우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빠르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소한 용어들과 지식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깐 머리가 멍해져요.

어린 학생들은 아주 빨리하는 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리고 나이 많은 제가 민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교수님들하고 상담도 잘 못하고...

학내 행사는 기본적인 것만 참석했고, 동아리는 가입 안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관심·흥미도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제가 일할 때에 비해서 용돈이 부족했어요. 항상 아르바이트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어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변화시키는(촉

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계(정서적 지지/경제적 도움/주변의 인정)'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졸업, 면허 취득과 취업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다. 1학년 때부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대인관계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다.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대학 생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녀가 등록금과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일도 있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것과 앞으로 간호사로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임상 실습 경험 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으로 임상 실습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과 빠른 라포 형성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어쩐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가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아이(자녀)들이 놀랐는데.....지금은 아이들과 대학 생활을 공유하기도 해요.

애(자녀)들이 등록금을 한 번씩 내줘요. 처음에는 어이없고 웃겼는데 세 번이나 내주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는 퇴직금으로 해결했고, 1, 2학년 때에는 학교 다니면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충을 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가끔 모임에 참석했을 때 차비도 주시고 그래요.

(나이 드신) 엄마가 엄청 좋아하셔요. 딸이 공부해서 좋고, 그제 간호학이라서 더 좋아하셔요.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서 하는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취업도 보장이 되어있고, 지금도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더 인정을 해줘요.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려움 극복 방법', '긍정적 학습전략', '부정적 학습전략'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재입학생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으로 혼자 해결해 나가거나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자신이 미래에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있었다.

입학 이전의 친구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도움, 그리고 주변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전공 학습에 대해서는 출석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학우나 교수에게 질문하는 열의를 보였다. 저학년 때부터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학우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스스로 매일 매일 복습하며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긍정적 학습전략).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거나, 모르는 데도 질문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평소 학습량과 과제가 많아서 교과서는 보지 않고 요약집과 문제집 위주로 시험공부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부정적 학습전략).

어려움을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알리지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제 개인 사정이고 제가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짧은 사회생활 경험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일했던 때를 생각해봐!”라고 말하며 이겨냅니다.

이 전공을 저보다 먼저 겪었던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조언이나 정보를 얻어서 해결해요.

오랜 친구한테 하소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 이 먹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주고 “애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애쓰니? 졸업에 의미를 두어라”라고 이야기해줘요.

출석은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하는 날을 제외하고 전부 출석하였고, 강의를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질문에 대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학업에 열의가 있고 마음이 맞는 학생들을 찾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스터디그룹 활동을 제안했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시험 볼 때 당시에 지문을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기했는데..... 교수님 의도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기
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학습량도 너무 많고 과제도 많아서 시험 때 강의 자료에
서 요약, 핵심만 보고 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요. 예습 복
습을 하지는 않고 교과서는 거의 안 봐요.

결과(Consequence)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는 ‘높은 전공 만족
도’, ‘성장’,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
기’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간호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성적 부담을
느끼지만,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재입학 동
기가 분명했던 만큼 후회하지 않았고, 중도 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축적된 대학 및 사회생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재입학한 후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며 어려움을
이기고 간호사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임상 실
습 경험 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매우 강
했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
니다.

(재입학한 후에) 생각하는 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확립화된 생각들을 가졌다면 이번 간호학과에 와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같은 반 아이들이 “언저럼 나이 들고 싶어요”라고 말
해주었을 때 기뻐요.

입학했으니까 졸업해야지요. 다니다 보니까 졸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학습경
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자료로
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이론
화하기 위해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11,12].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과에 재입학생들의 주된 동기는
간호사 면허 취득,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해
서 재도전을 하였다.

이것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재입학하거나 구직상태에서
재입학한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입학한
다고 한 Jang[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Park[5]은 재
입학 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전환 및 개인 성장
과 전문성 향상, 삶의 활력과 자극, 사회적 관계 형성과
봉사, 주위 권유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업
전환이 주된 동기였다. 졸업생 대부분이 간호사가 되는
학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또 간호사의 꿈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간호학과 입학 시 요구되는 높은 성적
과 경쟁률 등의 이유로 일단 다른 전공 또는 유사 전공인
보건 계열에 입학했다가 간호학과에 재입학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전 전공과 다른 간호학을 접하면서 새로운
학습상황을 만나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입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경험일 것
이다. 간호학과와 다른 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공 전환에 따른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9]. 또 Paik과 Song[13]은 재입학자
중 사회생활 등으로 공부를 이어서 하지 못하다가 다시
공부하게 된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본 연
구참여자들도 다수가 취업 상태에 있다가 재입학을 하였
기 때문에 학업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간호학과와 교육과정은 이론 교과목 수업
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학
습량이 과중하며, 임상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과 불
확실성에 직면한다는 연구[14,15]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이 학생들은 간호학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 기초 교과목부터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야 했으며,
개념이나 원리 파악을 힘들어했다. 보건 계열 경험자라
고 해도 다루는 내용이 깊어져서 어려워하며, 열심히 하
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임상 실습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고 실습
을 좋아한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는데 한발
가까이 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간호사가 된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직장생활 경험자와 이전에
병원 환경에서 실습이나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또 스스로 잘 해내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입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

킨다. 케이스 스터디나 간호과정,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일들은 4학년이 되어서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재입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전공 학습, 성적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는데 자신의 축적된 경험으로 혼자 해결하거나 나이가 어린 동급생보다는 먼저 간호학을 전공한 타 대학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가족이나 교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재입학한 것을 후회하거나 학업 중단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재입학생들이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획득함으로써, 학습과 삶의 내적 동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 Choe[2]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재입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학업 문제와 대인관계 때문에 중도 포기를 생각한다[9,13]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간호학과는 취업 보장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타 학과 재입학생들과는 달리 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이어서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이들이 학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재입학자라고 해도 등록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재입학 전에 준비하고 해결한다. 직장생활을 해서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으로 학비를 마련하고, 입학 후에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에서의 장학금 등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간다.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만학도의 경우 자녀들이 등록금을 내주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Paik과 Song[11]은 미래를 위해 자신이 재입학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다시 벌지는 않고 소비하는 생활로 들어온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선택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졸업 후에는 자신들이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학생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습전략이었다. 즉 시험문제(요약집, 국가고시 대비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학습전략은 단기간의 학습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성적은 얻게 되지만, 문제를 바꾸거나 응용하면 풀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환자를 간호하는 능력에서도 뒤떨

어지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결과에서 본 것처럼 재입학한 모든 학생이 이런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재입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외우는 방법으로 학과시험을 통과하고 면허시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간호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숙한 간호 수기를 습득한 유능한 간호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며, 시험은 그것을 입증하는 장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피상적인 학습 방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Hong과 Kim[10]은 간호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습 방법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Kim[9]은 재입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심리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교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했다. 대학에서 재입학생의 학업 적응을 도울 때는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전략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재입학은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기관으로서 성인의 계속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입학생 유치 및 관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5]. 그러자면 재입학자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3].

5.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재입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학습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재입학을 하였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간호학 전공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목표 의식과 축적된 경험을

무기 삼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간다. 이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자에 대한 확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입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적은 학생과 나이가 많은 학생의 학습유형이나 학습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맞춤형 학습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pp.1-9, Jan. 2016.
- [2] M. S. Choe, *A study on learning process in adulthood of reverse-transfer-students in colleg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57-77, 2003.
- [3] W. S. Chang, A study on reverse transfer students in Korean junior and technical colleg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1-18, 2004.
- [4] E. H. Park, A study on the educational participation factors of the reverse transfer students in Korean junior colleg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4, No.2, pp.87-115, 2008
- [5] J. H. Lee, Y. S. Ah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3, No.3, pp.89-116, 2007.
- [6]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College News, College Statistics, U-turn entrance to colleg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procollege.kr/web/board/13191.do> (accessed Aug. 5, 2022)
- [7] G. Y. Noh, *A qualitative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students who re-entered colleg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p.71-75, 2014.
- [8] M. J. Kim,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re-entered junior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universitie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si, Korea, pp.50-51, 2019.
- [9] J. Y. Kim, *A grounded theoretical analysi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the reverse transfer students in Gagopa college*.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p.137-143, 2018.
- [10] S. M. Song, S. H. Kim, An integrative review of learning experience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111-122, May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11>

- [11] S. Cronholm, "Grounded theory in use-a review of experiences". *Proceeding of the 1st European conference on research methodology for business and management studies*, Reading University, UK, pp.29-30, April 2002.
- [12] J. Chamberlain-Salaun, J. Mills, K. Usher, Linking symbolic interactionism and grounded theory methods in a research design: from Corbin and Strauss' assumptions to action, *SAGE open*, pp.1-10, July-September 2013.
DOI: <https://doi.org/10.1177%2F2158244013505757>
- [13] Y. R. Paik, B. N. Song,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 in college lif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6, No.2, pp.85-95, Nov. 2015.
- [14] Y. K. Kim, M. O. Cho, J. H. Yang,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6, No.1, pp.15-31, June 2005.
- [15]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5, No.4, pp.409-419, Dec. 2006.

한 미 현(Mi-Hyun Han)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7년 2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윤리